

## 광주·전남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반토막' 비상

79억4400만 달러...전년 대비 45.2% 하락

12월 무역수지도 흔들...수출 감소 여파

지난해 광주·전남 무역수지 흑자 폭이 지난 2021년 대비 4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무역수지 흑자역도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

해 80.8%나 떨어지는 등 무역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2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

주·전남 수출(12월 말 누계 기준)은 673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반면, 수입은 594억 400만 달러로 32.4%나 증가해 무역수지는 79억4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무역수지 흑자액 144억9700만 달러 대비 45.2%나 떨어진 수치다.

지난 12월에도 광주·전남지역 수

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한 49억2500만 달러, 수입은 5.8% 증가한 46억7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5400만 달러 흑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무역수지 흑자액 13억 2400만 달러에 비해 80.8%나 떨어진 수치로, 수출 감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광주지역은 수송장비와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고 전남지역은 화공품과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4% 떨어진 13억6100만 달러, 수입은 9.2% 증가한 7억8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기계류(2.6%)가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9.5%), 반도체(15.7%), 가전제품(28.5%), 타이어

(6.7%)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2.0%), 기계류(0.1%)가 증가했고 고무(7.2%), 화공품(21.3%), 가전제품(52.5%)을 감소했다.

12월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한 35억6400만 달러, 수입은 5.1% 증가한 38억9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2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석유제품(26.9%), 수송장비(62.6%)가 증가한 반면 화공품(31.2%), 철강제품(75.1%), 기계류(17.4%)는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30.5%), 석유제품(29.5%)이 증가했고 석탄(0.6%), 철광(47.0%)은 감소했다. /권영안 기자



제 1차 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 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 1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 민주 광주시당 "9대 현안 힘모으자"

첫 자치분권 협의...가뭇 대책·시영재고·군공항 이전 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시,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의장단과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광주시당은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병훈 시장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등 40여 명의 당연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중앙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번째 열린 광주지역 자치분권정책협의회 회의다. 현안은 모두 9개로 ▲가뭇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 ▲시영재고 설립과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국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무등산 정상 개방 ▲복합쇼핑몰 유치 ▲국가 지원 ▲지역요양원 처우 개선·노동권 증진 방안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과 의료특구 활성화 방안 ▲우리밀산업 현황·소비 촉진 방안 ▲도시가스 취약지 공급시설 설치지원 등이다.

대체수원 확보의 경우 영산강 물을 끌어오고 지하수 관정을 뚫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물절약 운동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물 부족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상수도관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수립과 절수기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포함해 항구적인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광주시, 시의회 등 관련기관이 적극 협력키

로 결의했다.

또 시영재고 설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모빌리티 선도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주당 소속 지역국회의원과 광주시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GIST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GIST부설 시영재고 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유치의 경우 영세상인과의 상생, 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광주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 등 3대 원칙을 정하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적극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특히 법인 시설보다 개인신고 시설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상위법 개정 논의 등을 광주시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로 전남대 새병원 건립과 함께 우수한 의학 인력 양성 및 지역 환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를 이어가고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키로 약속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 7개대학 5년동안 27개 학과 사라져...전남대도 2개 폐과

"교수들도 타과 변경...교육부·시 대학협력팀 대책 마련"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이 위기인 가운데 전남대를 비롯해 지역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가 폐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역의 7개 4년제 대학으로 제출받은 '폐과현황'(2018년~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27개 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는 송원대가 6개 학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대·호남대 각 5개학과, 남부대 4개 학과, 광주대 3개 학과, 전남대·광주여대 각 2개학과 순이다.

폐과에 종사했던 교원은 총 97명, 송원대가 26명, 광주대 16명, 조선대 15명, 남부대 14명, 호남대 11명, 전남대 8명, 광주여대 7명이다.

이 중 61명은 다른 학과로 변경했으며 3~4학년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강의를 이어하고 있는 교원은 28명이다.

또 일부 교원은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 삭감, 직권면직을 당해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학과가 통·폐합되면

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학과는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며 "땀질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인 만큼 교육부와 광주시 전담부서인 대학협력팀이 적극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일식 기자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측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 010-6265-0057